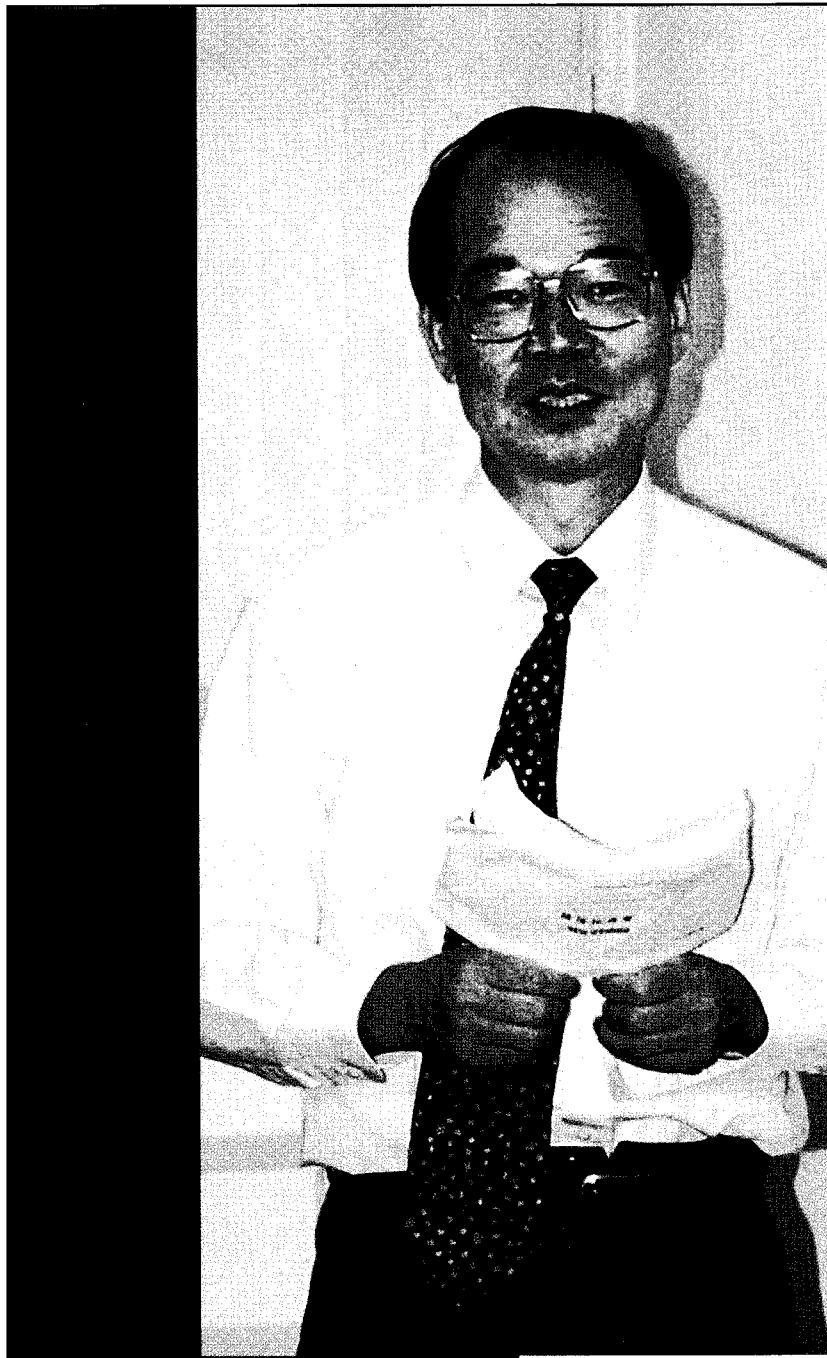


제2호 에너지절약 전문투자조합 운영 기술력과 해외경쟁력 갖춘 사업아이템이 투자 1순위



“에너지절약사업이 지금의 인터넷 못지않은 사업아이템으로 각광받게 될 겁니다.”

에너지관련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최근 결성된 K&P 에너지절약 전문투자조합에 4억원의 출자와 더불어 업무 집행을 맡고있는 플래티넘기술투자(주) 이창수 대표이사는 에너지분야의 발전 가능성을 확신했다. 아울러 에너지절약사업이 앞으로 5년 이내에 유망 업종으로 각광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가 이처럼 에너지분야에 대한 관심과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된 건 산은캐피탈에 재직할 당시 일부 ESCO나 에너지 관련 벤처기업에 투자하면서 충분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한국전력과 산은캐피탈이 출자한 에너지절약 전문투자조합 1호 역시 남들이 등한시하는, 그러나 무궁무진한 시장성을 가진 에너지분야를 확실한 투자처로 발굴하려는 그의 탐과 노력이 섞인 결과물이었다.

이창수 대표이사가 산업은행 자회사인 한국기술금융에서 벤처전문 투자업무를 담당하던 시절, 40개 투자기업중 무려 30개가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성장할만큼 그의 투자 노하우에 힘입은 기업들은 성공을 거두었다.

투자기업으로 지목되면 동시에 대외신인도 역시 상승곡선을 그리기 마련. 게다가 에너지절약 전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투자금액의 150% 범위의 시설자금과 10억원 한도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도 부여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업체가 투자대상에 선정될 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올해 3개업체 선정 10억원 투자예정

우선, 창업 예정이거나 창업 7년 이내의 에너지절약관련 벤처기업이어야 한다. 기술력과 경쟁력,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정되며, 특히, 전력, 가스 등 에너지분

“첫째는 해외시장을 무대로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이 관건입니다. 남들도 다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 가능성을 갖춘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추진력이나 됴됨이 등 자질 역시 핵심포인트입니다.”

K&P 에너지절약전문투자조합 개요

야의 절약제품을 생산하는 중소벤처기업이 집중 투자대상이다.

“첫째는 해외시장을 무대로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이 관건입니다. 남들도 다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 가능성을 갖춘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추진력이나 됴됨이 등 자질 역시 핵심포인트입니다.”

이창수 대표이사는 해외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투자대상의 1순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 33억원으로 조성된 출자금은 3년에 걸쳐 지원된다. 올해안에 3개 정도의 업체를 선정, 10억여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방식은 주식이나 전환사채 매입형태이거나 프로젝트 투자, 즉 특정사업부문에만 재정지원을 하고 투자한 부분의 이익금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필요에 따라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경영컨설팅도 겸할 계획이다. 지난 1호와의 차이점에 대해 이창수 대표이사는 “1호때는 홍보가 부족했던 측면이 없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특별분야의 전문화를 표방한 전문가적 집단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2호 투자조합으로 그치지 않고, 3호, 4호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했다.

“에너지업종이 투자할만한 규모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지만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앞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전이나 가스공사 같은 에너지공급사들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출자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창수 대표이사는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같은 성격의 투자조합을 만들어갈 생각이다. 그래서 요즘 ‘첫단추를 잘 채워야 한다’는 말을 자주 되새긴다.

앞으로 국내 우수한 인력들이 지금의 정보통신사업처럼 에너지절약사업으로 몰려드는 것, 새로운 기술개발과 상업화를 촉진시켜 에너지절약시장을 키워나가는 것, 투자조합에서 그가 이루어나가고자 하는 바램이자 에너지가족 모두의 바램이다.

1. 조합 규모 및 구성

주요조합원	출자금액(백만원)	출자비율(%)
플래티넘기술투자(주)	400	12.1
중소기업진흥공단	900	27.3
한국전력공사	1,600	48.5
한국가스공사	400	12.1
합계	3,300	100

2. 존속기간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날로부터 7년

3. 주요투자대상

에너지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에 규정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종기기 생산업체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상의 에너지 절약시설 생산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한함)
 - 전력 및 가스 분야 부품소재 국산화관련 벤처기업
 - 산업자원부에 등록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 에너지절약형 시설설치 중소기업 등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관련 중소기업. 단, 2천만원 이상의 시설을 설치한 기업에 한하며, 에너지절약형 시설설치 중소기업에 투자는 총출자금액의 30% 이내로 한다.

4. 투자방법

투자업체가 발행하는 주식·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프로젝트 투자 등의 방법

5. 투자한도

동일기업에 대한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

에너지절약 전문투자조합이란?

국가적인 에너지절약정책에 부응하고 에너지절약관련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처음으로 한국전력과 산은캐피탈이 출자하여 결성됐다. 융자방식의 에너지정책자금을 투자와 융자 병행방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비율을 경감시켜 주는게 특징이다. 또한 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일정규모의 시설 자금 및 운전자금을 융지해준다.